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48호 【루체 제25557호】 주제 106 (2017)년 2월 17일 (금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백두산총대를 억세게 틀어쥐고 태양의 위업을 빛내여갈 최정예혁명강군의 신념의 맹세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장병들의 레식 진행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을 맞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 충정을 맹세하는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장병들의 레식이 15일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진행되었다.

광장은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의 개척자, 탁월한 령도자이시며 백두산대국의 승리와 영광의 기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에 대한 전제 인민군장병들의 절절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모의 정에 휩싸여있었다.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광장에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 만세!》라는 구호판들이 세워져있었다.

또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선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자!》,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복속으로 사수하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라는 구호판들이 세워져있었다.

기갑제양대에는 조선로동당기와 공화국기들이 나뭇기고있었다.

주석단에는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군기들이 세워져있었으며 그 광장에는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에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메식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부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치수 황병서동지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치수 리명수동지를 비롯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장병들, 각각 군사학교, 혁명학원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수령님과 장군님은 함께 계시네》의 노래주악이 울려 퍼지는 속에 조선인민군 악단의 레식이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을 우리의 전제 참가자들은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 《김정일장군의 노래》가 강중하게 주악되는 가운데 21발의 메로가 발사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 충정을 맹세하는 연설을 황병서동지가 하였다.

연설자는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을 맞이하는 전제 인민군장병들의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생축원의 인사를 삼가 드렸다.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영생불멸의 주제사상, 선군사상을 창시하시고 조선혁명을 승리예로 이끄시어 이 땅 위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 국가를 일떠세우시었으며 부강조국건설의 만년기쁨을 마련하여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황일대전의 피어린 격전장에서 전설적 발전산의 아들로 탄생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서는 탁월한 선군혁명명도로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시므로 주체의 사회주의를 공고발전시키시고 그 필승불패성을 힘있게

파시하시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전대미문의 협동력경주에서 주체의 붉은기, 선군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우리 조국을 일심단결된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일떠세우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은 민족의 어머니로 천만년 영생하십시오이라고 말하였다.

연설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 전제 인민군장병들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의 맹세를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우리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한치의 드림도 없이, 한결같은 양보도 없이 무조건 철저의 관철함으로써 철세위인들의 영광찬란한 군건설업적을 전철의 용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어나가겠습니다.

전군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높이 위대한 수령님의 군대, 위대한 장군님의 군대, 당의 군대로서의 혁명적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하늘땅이 얼떨떨히 뒤질런다 해도 오직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굳게 믿고 따르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와 금수산태양궁전을 무속으로 사수하는 전진단결의 성서, 방패가 되겠습니다.

전군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유일적명령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기 위한 사업을 새로운 단계에서 끊임없이 심화발전시키고 5대교양의 열풍속에 살아도 붉은 당기가 휘날리는 당중앙위원회와 혁명적당군건설의 용호를 잇고 삼미 죽어 도 그 기발아래에서 다진 맹세를 지어 끝까지 싸우는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끈끈히 준비하겠습니다.

혁명적당군건설의 용호선인 오종출7면대심오쟁취운동과 군위부대운동의 봉화를 높이 추켜들고 당이 제시한 4대강군화대전과 3대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용감, 용매전하여 전군을 당중앙을 결사옹위하는 항일의 7면대, 전철의 군위부대로 만들겠습니다.

우리들은 조선인민군상징 85표이 되는 뜻깊은 올해를 또다시 혼신의 해, 싸움준비완성의 해로 정세준 당의 의도를 깊이 새겨안고 혼연혁명 5대방침의 요구대로 백두산혼연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그 어떤 임무도 완담의 수행할수 있는 팔면 나는 일당백의 단능싸움군, 백두산호랑이들로 억세게 준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최고사령관을 휘날리며 혁명군악에 맞추어 보무당악기 행진제기는 대오마디에는 투철한 수령경사용위정신, 김정일애국주의로 심장의 피를 끓이는 사상과 신념의 강자, 전진단결의 성서, 방패가 되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와 금수산태양궁전을 무속으로 사수해나갈 인민군장병들의 전투적기상이 새차게 나타냈다.

메식은 《김정은장군 무속으로 사수하리라》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이어 태양조선의 최대의 민족적명인 광명성절을 맞이하는 인민군장병들의 환희와 격정의 분출인양 뜻깊은 2월의 하늘가에 경축의 축포가 연이어 터져올랐다.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장병들의 레식은 전군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위대한 대원수님의 애국위업, 사회주의 강국건설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 혁명적당군, 백두산혁명강군의 불패의 위용을 단방에 펼쳐갈 역적불변의 의지를 힘있게 피시하였다.

우리 인민군대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선군혁명의 제일기수, 불려대의 영예를 남김없이 떨치며 김정은 혁명장군의 불패의 위력으로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기어이 성취하겠습니다. 이것을 태양민족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에서 다시한번 굳게 맹세합니다.

전제 참가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군건설업적용민대에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용매로 믿음직하게 담보해나갈 신념의 구조들을 무량하게 재했다.

광장에서는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장병들과 각각 군사학교, 혁명학원 학생들의 분렬행진이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을 모신 초상기가 붉은기종대의 호위를 받으며 입장하였다.

전제 레식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기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기를

볼 우리들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최고사령관을 휘날리며 혁명군악에 맞추어 보무당악기 행진제기는 대오마디에는 투철한 수령경사용위정신, 김정일애국주의로 심장의 피를 끓이는 사상과 신념의 강자, 전진단결의 성서, 방패가 되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와 금수산태양궁전을 무속으로 사수해나갈 인민군장병들의 전투적기상이 새차게 나타냈다.

메식은 《김정은장군 무속으로 사수하리라》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이어 태양조선의 최대의 민족적명인 광명성절을 맞이하는 인민군장병들의 환희와 격정의 분출인양 뜻깊은 2월의 하늘가에 경축의 축포가 연이어 터져올랐다.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장병들의 레식은 전군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위대한 대원수님의 애국위업, 사회주의 강국건설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 혁명적당군, 백두산혁명강군의 불패의 위용을 단방에 펼쳐갈 역적불변의 의지를 힘있게 피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태양조선의 봄 하늘가에 러져오른 경축의 축포성 광명성절을 경축하여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축포 발사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을 경축하여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축포발사가 있었다.

16일 저녁 김일성광장과 주체사상탑을 중심으로 한 대동강강변인 온갖은 광명성절을 맞이한 크나큰 환희와 기쁨을 안고 경축의 불꽃바다를 보기 위해 모인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로 흥성이고 있었다.

군중들은 백두산대국의 영상이시고 천만군민의 영혼이 담긴 거대한 영웅의 영웅적인 모습에 감동하여 가슴이 뛰고 눈물이 흘렀다. 영웅의 영웅적인 모습에 감동하여 가슴이 뛰고 눈물이 흘렀다.

로 전진하고 승리해온 영광의 나날들을 뜨거운 격정속에 돌이켜보았다.

19시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노래》의 선율이 장중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경축의 축포발사가 순조롭게 수도의 하늘을 붉게 물들여었다.

격동적인 20세기의 년대기에 불멸의 문자로 아로새겨진 민족최대의 경사의 날, 혁명적명절을 새세넨년 빛내여가려는 천만군민의 충정의 마음이란가 형형색색의 축포들이 러져오른 경축의 밤하늘에 환황한 일만경을 펼쳐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생애는 혁명의 불꽃을 높이 들고 강철의 의지와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전진미담의 험난한 조형길을 헤쳐오신 위대한 혁명가의 가장 빛나는 찬상이었으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절대적 애국자의 가장 고결한 찬상이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도의 정이 넘쳐흐르는 속에 《장군님은 태양

으로 영생하신다》, 《태극과 홍도》의 노래가 울려 퍼지며 축포들이 연방 피쳐올라 영생축원의 불꽃바다를 펼쳐놓았다.

황홀한 불꽃바를 격정속에 바라보는 군중들은 이만위천을 한평의 정치신념으로, 지름으로 간지하고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전진미담의 험난한 길을 헤쳐오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도의 정이 넘쳐흐르는 속에 《장군님은 태양

으로 영생하신다》, 《태극과 홍도》의 노래가 울려 퍼지며 축포들이 연방 피쳐올라 영생축원의 불꽃바다를 펼쳐놓았다.

황홀한 불꽃바를 격정속에 바라보는 군중들은 이만위천을 한평의 정치신념으로, 지름으로 간지하고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전진미담의 험난한 길을 헤쳐오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도의 정이 넘쳐흐르는 속에 《장군님은 태양

으로 영생하신다》, 《태극과 홍도》의 노래가 울려 퍼지며 축포들이 연방 피쳐올라 영생축원의 불꽃바다를 펼쳐놓았다.

황홀한 불꽃바를 격정속에 바라보는 군중들은 이만위천을 한평의 정치신념으로, 지름으로 간지하고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전진미담의 험난한 길을 헤쳐오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도의 정이 넘쳐흐르는 속에 《장군님은 태양

으로 영생하신다》, 《태극과 홍도》의 노래가 울려 퍼지며 축포들이 연방 피쳐올라 영생축원의 불꽃바다를 펼쳐놓았다.

황홀한 불꽃바를 격정속에 바라보는 군중들은 이만위천을 한평의 정치신념으로, 지름으로 간지하고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전진미담의 험난한 길을 헤쳐오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도의 정이 넘쳐흐르는 속에 《장군님은 태양

으로 영생하신다》, 《태극과 홍도》의 노래가 울려 퍼지며 축포들이 연방 피쳐올라 영생축원의 불꽃바다를 펼쳐놓았다.

황홀한 불꽃바를 격정속에 바라보는 군중들은 이만위천을 한평의 정치신념으로, 지름으로 간지하고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전진미담의 험난한 길을 헤쳐오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도의 정이 넘쳐흐르는 속에 《장군님은 태양



주체의 선군태양의 불멸의 업적 천만년 빛내여갈 신념의 분출 민족최대의 명절 광명성절을 온 나라가 성대히 경축

주체조선의 자주적, 불굴의 기개를 신고 만민대동으로 지운은 우리의 강위적인 혁신적 불투기인 《북극성》 판도판의 불미성으로 2월의 하늘가에 장대한 축포성을 울린 우리 군대와 인민이 크나큰 환희와 격정속에 광명성절을 뜻깊게 경축하였다.

조국과 민족의 일기에 꽃들이 밝은 미래가 펼쳐진 대경사의 날을 맞이한 나라에 만고집세의 애국자이시며 불세출의 선군영웅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일화같은 그리움과 흥도의 정이 뜨겁게 차일지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장군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어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으로 사람들의 물결이 끊이지 끊이지 울렸다.

경건한 마음이고 광장에 들어선 그들은 사회주의조선의 영상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을 우리들 삼가 인사를 올렸다.

광장공간에서 집세위인들의

빛나는 혁명생애를 돌이켜보는 군중들의 가슴가슴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시어 인민의 품과 리상이 활짝 꽃피는 조국의 자랑찬 현실을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보시였으면 얼마나 기뻐하시랴 하는 간절한 생각으로 뜨겁게 젖어있었다.

만수대덕과 각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통상과 태양상을 찾아 인민군장병들,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경도의 정을 표시하였다.

그들의 열광바다에는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끄시어 백두산대국의 강성번영을 위한 만년노래를 마련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영도따라 태양인민의 존엄과 영광을 온 누리에 펼쳐갈 흥정의 명세가 이루어져있었다.

수도 평양의 제2차 김정일화축전장과 각 도의 김정일화축전장에서도 어머니장군님에 대한 열화같은 그리움의 세계가 펼쳐졌다.

관객자들은 위인칭송의 꽃바다로 황홀경을 이룬 축전장과 전시회장을 돌아보며 혁명의 대성인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거룩하신 존엄과 자애로운 영상은 사회주의조선의 불세출의 상징으로, 승리의 기치로 천만의 심장속에 빛나고 있음을 질감하였다.

중앙과 각 도의 사진전람회장을 찾은 각계층 근로자들은 우리 조국의 자랑찬 미래를 안시고 백두광명성으로 탄생하시어 혁명생애를 오로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해 광그리 바치신 어머니장군님의 성스러운 혁명적업적을 돌이켜보는 영광의 천만리를 뜨거운 격정속에 돌이켜보았다.

정양과 지방의 극장들에서는 광명성절을 경축하는 흥연무대들이 펼쳐졌다.

국립연극장에서 진행된 연극 《혈맥》 공연은 관람자들에게 집세의 위인들을 명예지배인으로 높이 모신 상연로동계급의 투쟁정신을 본받아 우리 당을 떠받드는 역전 기쁨이 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주춧돌이 될것을 기대하게 하였다.

환상예술 《오도바이세주》, 기능예술 《비둘기나오기》 등의 예술공연이 국립교예단 예술극장에서 진행되며 명절맞이는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에게 희열과 광명을 안겨주었다.

광강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강원도, 함경북도도 비롯한 각지의 예술인들은 경축공연무대에서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을 맞이한 우리 인민의 크나큰 기쁨과 환희를 다채로운 공연종목들에 담아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강계시, 평성시, 함흥시 등

각 도소재지들에서는 도급기관 예술소조종합공연들이 있었다.

합창 《2월은 봄입니다》, 남성중창 《우리는 잊지 않아요》, 《인생의 영광》, 여성중창 《선군승리 용세야》, 선동시와 합창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를 비롯한 종목들은 관람자들의 가슴마다에 혁명적행위의 불꽃을 높이 뜨시고 우리 당과 혁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도의 정이 끓어넘치게 하였다.

각지 공장, 기업소, 농장, 건설장들에서도 예술소조종합연들과 체육 및 유희오락경기가 진행되며 어머니장군님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이 땅우에 빛나는 현실로 펼쳐갈 근로자들의 혁명적, 투쟁적 열정을 보여주었다.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각지 학생소년들이 경애하는 어머니 김정일동지의 품속에서 미래의 주인공, 사회주의조선의 믿음직한 역군들로 훈련되는 비바람을 맞고 조선소년단에 입단하였다.

태양조선의 최대의 민족적명절인 광명성절을 뜻깊게 경축하며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위업,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의 승리를 앞당겨나갈 결사의 신념으로 가슴 불태웠다.

2월의 조국강산에 흘러넘치는 어머니당의 뜨거운 후대사랑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혁명학원원아들과 전국의 어린이들, 소학교학생들이 사랑의 선물을 받아안았다

사회주의조선의 밝고 창창한 미래를 꽃피워가는 어머니당의 환율이 송고한 후대사랑에 의해 조국강산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주인공으로 자라나 이 세상 만물을 누려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2월의 조국강산에 더욱 차넘치고있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을 맞으며 혁명학원원아들과 전국의 어린이들, 소학교학생들이 또다시 어머니당의 크나큰 사랑을 받아안았다.

만경대혁명학원, 강반석혁명학원을 비롯한 혁명학원의 원아들은 혁명가유지녀들을 위해 메를 주시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그 사랑이 가슴에 그대로 울려드는 것만 같아 뜨거운 눈물로 두눈을 적시었다.

그들은 당과 수령을 투철한 혁명적신념과 순결한 도덕의리로 말미암은 부모불처럼 혁명의 피조기를 뜻깊이 이어가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명세를 더욱 굳게 가다듬었다.

세상에 불도 없는 사랑의 정,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낌없이 다 흘려주는 어머니

당의 은덕이 솟아나는 적정을 굽지 못하여 교양원들과 교원들, 학부모들은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우리 당의 사랑은 태양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안아 키우는 영원한 빛줄기이라고 격동된 심정을 드로하였다.

우리 아이들을 억만금의 금은 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귀중한 보배로, 희망과 미래의 전부로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어머니 김정일대원수님의 따스로운 품이 있어 아이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는 절진한 우리 식 사회주의의 힘찬 통음으로 끊이지 울려 퍼질것이다.

《조선중앙통신》

한진성공의 자랑찬 비행운을 세겨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리며 참가자들은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 영도자》의 노래선율에 맞추어 열정적으로 춤을 추었다.

우아하고 화려한 조선치마치마를 입고 아름다운 춤가락을 펼쳐가는 녀성들의 광명을 더해주시며 《올라라!》, 《승려야!》를 비롯한

경축무도회 진행

경축무도회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충직하게 받들어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 애국적헌신성을 남김없이 발휘해나갈 참가자들의 열의가 넘쳐나는 속에 진행되었다.

《조선중앙통신》

우리 나라 도서 기증식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75돐을 맞으며 2월 로씨야 원동국립과학도서관에서 우리 나라 도서기증식이 진행되었다.

기증식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저작들을 비롯한 우리 나라 도

서들이 전시되어있었다.

로씨야 원동국립과학도서관 총장과 성원들, 출판보도계 인사들 그리고 하바롭스크주에 우리 나라 부흥명사와 명사들이 기증식에 참가하였다.

기증식에서는 도서판 총장에 게 우리 나라 도서들이 전달되었다.

총장은 위대한 김정일각하의

관심을 받았으며 귀중한 도서들을 기증받는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바롭스크 주민들은 김일성각하께서 무 나사시어의 판권발행에 이룩하신 커다란 업적을 잊지 않고있다.

오늘 받은 도서들이 조선인들

고칠어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귀중한 교과서로 되리라고 생각한다. 존경하는 김정일각하의 명도 밑에 조선인민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훌륭한 투쟁에서도 보다 큰 성과를 거둘것이다.

앞으로 도서판관영을 더 잘하여 조선과 인민의 친선관계발전이 이바지해나갈것이다.

《조선중앙통신》



태양의 꽃바다, 불멸의 꽃축전으로 더욱 환희로운 2월의 봄명절

제 21차 김정일화축전장을 돌아보고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더해만지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불타는 충정의 마음들이 절친 태양의 꽃바다, 불멸의 꽃축전이 인류광명의 정사로 문명 광명성질을 꽃길에 맞이한 내 조국강산에 봄의 온향을 한껏 더해주고있다.

무궁번영하는 우리 조국,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밝은 앞날을 축복하며 성대하게 진행되는 제 21차 김정일화축전은 명실공히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헌신하는데 높이 모시고 장군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깊이 빛내어나가려는 천만군민의 드림없는 신념과 의지의 분출이 절세의 위인을 열렬히 흠모하고

파초전시회들이 진행되고있다.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와 같이 절세의 위인들에 대한 충성의 열기로 끓어넘치는 하나의 꽃을 가지고 이처럼 수없이 많은 이 세대하고 꽃길에 진행하는 꽃축전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열화와 같은 흥호와 충정의 마음에 떠날줄이 활짝 피어난 3만여명의 불멸의 꽃들이 위인성상의 대회를 이룬 축전장의 여러꽃을 돌아보면서 우리 인민의 태양의 축복속에 꽃길이 융성번영할 우리 조국의 장광한 미래를 가슴되게 화신할수 있었다.

《우리 일군들을 소개해 주십시오. 훌륭한 제비꽃을 마련하기 위한 온실개건전투를 통해 우리 인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더욱 깊이 자리잡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우리들로 하여금 많은것을 생각하게 하였다.》

축전장에서 일군들의 모습은 볼수 없었다. 지금도 모퉁이 당정관철을 위해 순한 일군들을 안고 뛰고있을것이라고 막은 행동은 말하였다.

우리는 전시대를 다시금 바라보았다.

전시대에 만발한 태양의 꽃 김정일화, 그 꽃을 떠날줄이 있는 우리는 보이지 않았다.

바로 그 뿌리와 같이 아꼈던 이 바치는 제정성의 일군들의 숨은 노력이 만들어낸 더욱 아름답게 안겨오는 불멸의 꽃이었다.

참으로 절세위인을 절절히 그리며 번영하는 충정을 바쳐가고 모조초초로도 활짝, 평의비름과 같은 우리 나라에서 피어나는 꽃들로 선정하여 전시대

추동력으로 되었고 과학적인 제비꽃을 받아들이고 김정일화꽃을 더 활짝 피울수 있게 한 자랑으로 되었다.

정년 위대한 장군님을 영리한 높이 만들어주려는 우리 인민의 불타는 충정이야말로 이 세상 모든 아름다움의 정화가 아닐것인가.

꽃 과 총 대

조선인민군 김광철소속부대 전사대에서 우리는 발걸음을 멈추었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을 안고 활짝 피어난 600여명의 불멸의 꽃으로 형성한 화폭의 중심에 태양의 모습으로 환하게 웃으며 만경대 혁명헌원아들과 함께 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사진본을 높이 모신 우리 전사대는 매우 신실하게 영인 영인 높이 우리로써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도를 총대로 총직하게 받들어나가는 부대장병들의 드림없는 신념과 의지를 보여주고있습니다.》

넓고 평평한 해설원의 목소리가 참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활짝 피어난 불교불은 김정일화꽃이더러, 역설 줄기마디에 비쳐있는 불세출의 선군명장에 대한 인민군정령의 다함없는 충정의 마음을 그대로 안아보게 하는 숭엄한 화폭을 이루어준 바라보느라니 뜨거울 격정이 끓어올랐다.

그후에서도 불멸의 꽃축전장에 빛나는 총대의 힘있는 형상이 안겨주는 의미는 참으로 든든했다.

바로 이 꽃길은 형상에도 불멸

자양분이 되고 밑거름이 되어

이 세상에서 제일 좋고 아름다운 것이 뭐냐고 물어보면 사람마다 나름대로의 대답이 있을것이다. 꽃, 물, 희망...

우리는 이 모든것을 합치고 합쳐도 대신할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을 꽃축전에서 만났던 똘똘하고 지도국의 한 일군이 들려준 이야기를 통해 하려고 한다.

《우리 지도국의 책임일군들이 제일 먼저, 제일 많이 찾은 곳, 새해 첫날 아침부터 시작해서 한해의 마지막날까지 찾은 곳이 바로 우리 김정일화축전장이 아닐까.》

이렇게 시작된 처량 배현승동무의 이야기였다.

불멸의 꽃을 가꾸는데서 중요한 것은 필요한 온도와 습도, 빛을 충분히 보장하는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것은 꽃을 직접 가꾸는 제비꽃들의 마음속에 사소한 그늘이라도 지지 않게 그들의 생활을 잘 돌

한 마음

경사로운 광명성질을 불멸의 꽃바다속에 더욱 성대히 맞이한 우리 인민의 크나큰 감격과 환희는 국토환경보호성전시대에도 떨치지 못했다.

꽃대와 꽃잎들이 한결같이 성실하고 아름다와 마치 한곡의 명화를 보는것만 같은 전시대에서 우리와 만난 국경 피정정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성당 김정일화는 볼수록, 기술수목 온갖을 장교의 비치고 싶은 열정의 꽃입니다. 꽃들의 상태가 조금만 달라져도 2월의 봄명절을 꽃길에 맞이하려는 우리들의 마음이 부족하면 갈아꽃과 함께 밤을 지새우곤 하였습니디. 우리 성인의 모든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한결같은 그 마음들이 열이 되고 빛이 되어 이렇게 아름다운 태양의 꽃바다를 펼칠수 있었습니디.》

자연의 모든 꽃들은 자기의 계절이 있고 일정한 생육조건이 있다. 하여 계절에 관계없이 사람들의 정서적으로 충족시키고 온실도 생겼을것이다. 하지만 과연 이 세상 그 어디에 태양의 꽃 김정일화처럼 사람들로 모두가 그렇듯 불같은 충정의 마음이고 열정을 바쳐가며 피어나는 꽃이 있었을인가.

김정일화가 세상에 태어났지언나 어느 수년전처럼 흥광하고 열정의 꽃처럼 활짝 피고 푸른 일제처럼 순결한 인민의 번영하는 충정의 한마음에 떠날줄이 태양의 꽃은 언제나 계절을 모르고 만발하고있다.

함몰이 그대로 밑거름이 되어 태양의 꽃세대에 자신들의 모든것과 다 바치는 지성과 열정의 날과 밤, 이 나라에 수놓아진 국토환경보호성의 일군들

끝없이 만발하는 충정의 꽃

우리의 발걸음은 중앙집합소 전사대에 이르렀다. 특색있는 전시대형상에 비쳐진 이꽃 일군

뿌 리 와

장광하게 드러낸 봉화국기와 더불어 솟아올라 불타오르는 금수신태양공전광장공원에서 서있는듯 한 감정에 휩싸였다.

제정성전시대가 자기 특색을 가지고 축전장을 훌륭히 장식하고있는데도 사연이 있었다.

같은 이

마라보느라니 마치도 우리가 금수신태양공전광장공원에서 서있는듯 한 감정에 휩싸였다.



절세위인의 숭고한 애국헌신의 한생

남 조선 인민들 높이 칭송

인민위원을 파주명도 삼으시고 한평생 인민행렬자의 거족 소리를 울려가신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장군님.

인민의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기 위해 애국헌신의 자국을 세겨가신 어머니장군님을 댈념 저를들은 높이 칭송하고있다.

서울의 한 역사학교수는 인류역사의 갈피마디에는 얼마나 많은 위인들과 그들이 이룩한 공적이 기록되어있는가, 그러나 위대한 장군님처럼 한평생 오로지 조국과 민족의 흥성번영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광그리 바치신 절세의 애국자를 역사에 아직 알지 못하고있다고 토로하였다.

문학가 유성진은 자기의 글에 다음과 같이 썼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한평생 민중을 하늘로 여기시며 언제나 민중과 함께 계시었다. 그래서 민중을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귀중한 존재로 여기시며 민중속에 계시는것을 락으로 삼으시었다. 민중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충민원 사회를 건설하는것이 그분의 드림없는 의지였다.

서울의 한 정치학교수는 인민에 대한 열사부정정신을 지니

시고 초강도강령권을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생애를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게 된다고 하면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김정일명수님께서는 자신은 근로인민의 심부름꾼이고 생활신조는 인민을 위하여 부투함이라고 하시었다.

그이께서는 명철날이나 일요일 지어는 자신의 관행일까지는 하루도 쉬지 않으시고 인민의 복락을 위해 공장, 농촌과 아흔을 찾아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었다.

나라와 인민을 위해 이처럼 헌신하신 명도자가 이 세상 어디에 있었는가.

자고로 신로군이라고 신하는 일하고 임고는 천다고 했지만 이렇듯 근로신이라는 사에는 력사에 없었던것을 안다. 의류학회의 한 성원은 인민위원이 김정일장군님의 파주명도의 길을 이어가시었다.

나는 김정일장군님의 수순한 잠바무치점에서 인민에 대한 그의 헌신의 절정을 보았다. 그이께서는 휴식일이나 명철날에도 잠바를 입으신 모습으로 인민의 행복을 위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었다. 그 길에서

외국선 박선원들의 경축모임

청진항, 남포항에서 진행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75돐을 맞이하여 외국선박 선원들의 경축모임이 14일 청진항에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먼저 청진시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정일장군님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불타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물을 드리었다.

모임장소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정중히 모셔져 있었다.

한자니아극선박 《에버블라이트》, 톰공국적선박 《글로포르트 6》 선장, 선원들이 참가한 모임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조선인민이 민족의 명멸로 성대히 경축하는 광명성질을 맞으며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세계가 공인하는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한평생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지자기 폭풍에 대한 자료

2017년 2월 16일부터 28일까지 지자기폭풍이 예견되는 날들은 다음과 같다. 2월 27일: 황성이 약한

지자기폭풍

23일에는 지자기권의 섭동 작용이 있을수 있다.